

코로나 팬데믹 뚫고 장애를 넘어, 도쿄 패럴림픽 스타들도 함께 뛴다

#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오늘 개막

‘장애 스포츠인 대축제’...경북 구미 일원서 6일간 열전 돌입

김영진·서수연 ‘金 예약’...김하은·이승훈 3관왕 도전 여자배구 4연패·뇌성축구 2연패...이미옥 3관왕 사냥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전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새로운 경향북도, 행복의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20일부터 6일간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전을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도쿄 패럴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장애인 스타선수들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대거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선수단은 탁구 등 총 22개 종목에 411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출전한다. 광주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5개 등 167개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선수단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한 만큼 모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구 지킴이 FC광주엔젤들이 제39회 대회에 이어 2연패 달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개인 종목에서는 광주장애인 육상의 ‘금빛 남매’ 김하은·이승훈이 시각(스포츠팀:112) 100m·200m·400m 등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광주시장애인실업팀 선수들도 복귀 후 곧바로 훈련에 돌

입,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탁구 남·여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김영진과 서수연 그리고 양궁 김옥금, 사격 이지석은 패럴림픽의 아쉬움을 이번 체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로 보답한다는 각오다.

광주선수단은 사전 경기로 열린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전남선수단은 농구·요트·트라이애슬론 3종목을 제외한 25종목에 539명(선수 335, 임원 관계자 204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9만점 획득과 전년 대회보다 두 단계 상승한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 종목인 여자배구 4연패, 뇌성축구 2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린 대회인 만큼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 낸 육상 필드 이미옥 3관왕, 역도 남자 -85kg 유병상, 여자 -67kg 김정화 2관왕 등 룬볼, 탁구, 당구 등 개인종목에도 다수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선수단은 지난 9-16일 사전대회에서 카누 남자 스피리트 200m KL1 김광현, 여자 200m KL2 손영숙이 금메달, 사격 여자 공기소총 입사 R2 개인전 이윤리가 은메달을 획득하며 목표 달성을 향한 순항을 하고 있다.

한편,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등의 행사 없이 치러진



지난 16일 사전 경기로 열린 사격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 SH2 경기에서 1천902.5점을 합쳐 비공인 세계신기록(총점기록 1천895.1점)을 수립한 광주선수단 이지석, 김근수, 박동안. (왼쪽부터)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사전경기로 열린 사격 여자 공기소총 입사 R2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윤리(왼쪽)가 문상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방역 지침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참가자 전원이 대회 참가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실내종목은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 군 및 경기장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실내종목은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 군 및 경기장만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실내종목



지난 11일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이 트로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고진영은 이 대회 우승으로 LPGA 한국선수 통산 199승 주인공이 됐다. /AP-연합뉴스

고진영·박인비·박민지·장하나 등 국내·해외파 총출동

## 한국인 LPGA 200승 “쏟다”

BMW 챔피언십 21일 개막

미국어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인 통산 200승 주인공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21일 부산에서 개막한다.

부산 기장군의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2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1988년 고(故) 구옥희 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협회장의 스탠더드 레지스터 제패 이후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쌓은 200승째가 된다.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끝난 파운더스컵에서 고진영(26)이 우승, 한국 선수의 통산 승수는 199승으로 늘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우승이 나올 가능성은 다른 대회에 비해 산술적인 확률 자체가 크다.

전체 출전 선수 84명 가운데 한국 선수가 절반이 넘는 49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21일 개막하는 BMW 챔피언십은 출전 선수 가운데 30명이 KPGA 투어 룩이어서 원래 한국 선수의 비중이 큰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 선수들의 출전이 예년보다 더 줄었다.

한국 선수로는 199승째를 따낸 고진영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박인비(33)와 김효주(26), 김세영(28) 등 올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들이 ‘200승 사냥’에 나선다.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이 우승하면 이번 대회에 불참하는 세계 1위 넬리 코다(미국)와 각종 개인 기록 부문 격차를 좁히거나 역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 랭킹, LPGA 투어 시즌 평균 타수와 올해의 선수, 상급 부문에서 모두 코다가 1위, 고진영이 2위이다.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장하나(29)를 비롯해 박민지(23), 박현경(21), 임희정(21), 최혜진(22) 등 KPGA 투어 선수들도 국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에서 ‘신데렐라 탄생’을 노린다.

전인지(27)와 유소연(31), 초청 선수로 나오는 박성현(28) 등도 ‘우승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에 손색이 없다.

외국 선수로는 교포 선수인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 대니얼 강(미국) 등이 출전하고 에리아 쭈타누깐(태국), 해나 그린(호주), 셸린 부티에(프랑스) 등이 한국 선수들과 경쟁한다.

이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 열리지 않아 장하나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온다.

### 한국 선수 역대 LPGA 투어 주요 우승 일지

승수	일시	선수	대회명
1	1988년 3월	구옥희	스탠더드 레지스터 클래식
10	1999년 9월	김미현	스테이트팜 클래식
50	2006년 2월	김주미	SBS오픈
100	2012년 8월	유소연	제이미파 톨리도 클래식
150	2017년 2월	양희영	혼다 타이일랜드
199	2021년 10월	고진영	파운더스컵

## K리그도 수도권 ‘백신 패스’ 경기장서업·증명서로 인증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백신 패스’ 시행과 함께 수도권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재개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말 4경기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9개 구단을 유관중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모든 좌석 사전 예매 방침은 유지되며, 물과 음료 외에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는 지침도 그대로다.

수도권 관중의 백신 접종 여부는 경기장 입장 게이트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게 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COOV 앱과 연동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QR 코드를 접속해 접속한 지 2주가 지났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각 구단에 추천했다. 앱 사용이 여의치 않다면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연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동 자제를 위해 금시위를 발자 지침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4일 개막해 20일까지 열린다. /AP-연합뉴스

## 베이징올림픽 성화 채화식서 기습시위하는 인권운동가들



국제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19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이 열리는 동안 인권운동가들이 티베트 국기와 현수막을 펼쳐 기습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4일 개막해 20일까지 열린다. /AP-연합뉴스

## 순천FC U-15, 18경기 전승 우승

광주·전남리그, 중등부 고학년·저학년부 공동 우승 이끌어

순천FC U-15팀이 2021년 전국 중등 축구 광주·전남 리그전에서 18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사진)

2021년 전국 중등축구 광주·전남 리그전은 지난 5월22일 벌교생태공원 축구장에서 시작해 지난 17일 고학년(3학년) 경기를 끝으로 5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우승 후보이자 숙명의 맞수인 순천FC U-15팀과 장흥FC U-15팀의 주말리그 최종전이 열렸다. 양팀은 양보할 수 없는 혈전을 벌인 끝에 순천FC U-15팀이 4대0으로 완승해 최종 리그

우승 왕좌에 앉았다. 지난 16일 펼쳐진 최종 경기에서도 순천FC U-15 저학년이 7대0으로 완승을 거뒀다.

전국 중등축구 광주·전남 리그전은 총 10개 팀이 참가해 연간 18경기를 치르는데 순천FC U-15는 18연승(전승)으로 우승했다.

전승 우승 기록은 리그전 개최 10여년 동안 전무하다. 이와 함께 순천FC U-15 저학년들도 9승 1무의 무패 기록으로 동반 우승했다. 무엇보다 이번 리그전은 고학년·저



학년부가 공동 우승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순천FC가 광주·전남지역의 축구 명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FC 소속 선수들은 프로팀 산하 광주FC 금호고에 4명, 전남드래곤즈 산하 광양제철고에 1명 등 총 5명이 프로 산하팀으로 전학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순천FC U-15가 좋은 성적표를 내면서 조강훈 순천FC 단장, 이영수 감독의 숨은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탁월한 지도력과 선수를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 AI 페퍼스, 홈 개막전 관중 20%(600석) 입장 빛장 열린 배구장, 열기 ‘후끈’



선수들의 파이팅 소리, 심판 휘슬 소리, 버저 소리 등으로만 가득했던 프로배구 현장에 생기가 돈다.

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14개 전 구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조정안에 따라 2021-2022시즌 홈 경기에서 관중을 받기로 했다.

프로배구 14개 구단은 손맞잡이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창단 첫 경기를 유관중 경기로 치르는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출신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미니콘서트와 가수 김태우의 예극가 제창 등 다양한 이벤트를 19일 홈 개막전에 준비했다.

사실 20% 수준의 관중 입장은 구단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관중 입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입장권 수입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각 구단은 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중 입장은 구단의 수입·비용 문제와는 다른 가치”라며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구장의 빛장도 열렸다. 수도권 구단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고, 비수도권 구단 구장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다.

프로배구 14개 구단은 손맞잡이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창단 첫 경기를 유관중 경기로 치르는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출신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미니콘서트와 가수 김태우의 예극가 제창 등 다양한 이벤트를 19일 홈 개막전에 준비했다.

사실 20% 수준의 관중 입장은 구단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관중 입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입장권 수입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각 구단은 팬들의 응원 속에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중 입장은 구단의 수입·비용 문제와는 다른 가치”라며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